

앙골라, 반군과 전투종식으로 전후복구사업 조기 착수예상

- 앙골라 정부는 3월 13일 자정을 기해 반군과의 전투를 중지키로 함으로써 독립 후 25년간 계속된 내전에서 사실상 승리하였음을 국내외에 천명하였음.
- 2월 23일 남서부 잠비아 국경 지역에서 UNITA (앙골라완전독립운동) 반군 지도자 조나 사빔비를 교전 중 주요 반군지휘군과 함께 사살하는 전과를 거둔 정부군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던 초기의 태도를 바꾸어 일방적인 전투 종식을 선언함.
- 정부의 이번 선언은 무장 병력의 숫자가 5만명(1992)에서 최근에는 4천명 이하로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반군이 10만 명의 병력과 현대식 장비로 무장한 정부군의 전력을 고려할 때, 정부의 존립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가 아니며 군사적인 진압보다는 정치적인 해결이 바람직하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임
- 특히 금년에 실시 예정인(시기 미확정) 대선 및 총선에서 반군의 주요 기반이며 이 나라 최대종족인 오빔분두족을 선거에 참여시키기 위한 유화정책으로 분석됨.
- 심해 유전 개발에 힘입어 아프리카 최대의 외국인 투자 유치국으로 부상한 앙골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된다면 석유가격 상승으로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는 경제가 더욱 안정될 것으로 보여짐.
- 특히 계속된 내전으로 피폐해진 도로, 항만, 철도 등 국가 기간시설 및 주택, 상하수도 등 40억에서 1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전후 복구 사업이 선거가 실시되는 금년 중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시점으로 보임